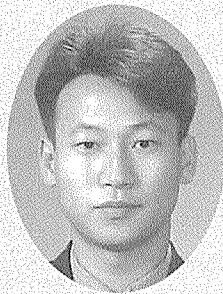


2001년 국내외 경기전망과 정유업계의 대응



황 윤 진

〈 산업연구원(KIET) 책임연구원 〉

금년 국내경제 전반적 침체 예상

외환위기 이후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졌던 국내경제는 98년 8월 저점을 통과한 후 급속한 경기회복국면을 보였다. 그러나 작년 들어 경기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작년 4분기 이후 급격한 침체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기국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가능할 것이나 향후 대내외 여건이 금년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견지에서는 작년 3분기(8월)가 경기정점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침체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금융 및 기업부문의 구조개혁이 시장참여자들의 기대에 비해 미흡하거나 지연되고 있어, 금융 및 실물부문의 안정성 및 투명성이 아직 공고하지 못함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미미한 외부충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경기의 예측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먼저 성장 측면을 보면, 작년 상반기 11.1%의 높은 성

장률을 기록하였으나 하반기 이후 재화·서비스 수출의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는 가운데 설비투자와 민간소비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9%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에는 경제성장률이 작년의 절반수준인 5%대 내외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작년 4분기부터 경제성장률이 외환위기 이전의 양상으로 회귀하는 가운데 금년의 대내외 경제여건이 작년보다는 다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작년 하반기 이후 둔화되기 시작한 최종소비지출은 금년에도 둔화세가 지속되어 최종소비지출 증가율이 연간 3%대를 기록, 작년수준(6%대)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년 설비투자는 경제성장 둔화, 물가상승폭 확대, 구조조정 및 합리화투자 경향 등에 따라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지만 8%대 중반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는 금년에 감소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상반기부터 건설투자가 증가세로 반전되어 연간으로 2%대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이다.

금년 소비자물가는 3%대 중반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

으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하반기 중 국제유가가 강세, 공공서비스 요금의 인상 등에 의해 가중된 물가상승압력이 금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금년에 생산자물가는 3%대 초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금년에도 유가를 포함한 국제 원자재가격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고유가에 따른 비용측면의 물가상승압력과 함께, 공공서비스 관련비용 인상, 농산물직불제 도입관련 농산물가격 상승,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실질적인 임금상승 가능성도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출입 측면을 보면 작년 들어 수입은 국내경제의 높은 성장과 국제유가 급등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내었으나, 수출도 세계경제의 고성장에 힘입어 호조세가 유지되었다. 이에 따라 작년 무역수지(통관기준 수출입차)는 수입이 전년대비 34.0%가 증가하였으나 수출도 20.1%가 증가한 것으로 보여 120억 달러 선의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금년에는 수출입 증가율이 작년에 비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출과 수입이 각각 9%와 11%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100억 달러 내외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금년의 금융시장을 볼 때 금리는 3년 만기 회사채수익률이 작년보다 대폭 하락한 수준인 연평균 8% 내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내경제의 성장세 둔화라는 금리 하락요인이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대내외 경기 불안감으로 작년 11월 이후 급격히 상승하였다. 향후 원/달러 환율은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반기 경제상황이 호전될 경우 원/달러 환율은 점차 하향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년 원/달러 환율은 연평균 1,180원 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 낙관적·비관적 전망 혼재

작년 말 IMF(국제통화기금)를 비롯한 세계경제 예측

기관들은 작년 중의 세계경제가 지난 88년 이래 가장 높은 4%대 후반의 성장률을 달성한 것으로 보고 금년에는 미국경기의 둔화예상에도 불구하고, 4% 내외의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최근 들어 이 수치가 대폭 하향조정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금년에 일본경제의 점진적 회복세와 EU지역의 성장세 유지 전망 등 긍정적 측면이 부각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고도 성장을 지속하였던 미국경제의 성장세가 금년 들어 크게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여파로 대미 수출에 의존하는 아시아 지역의 성장세도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작년에 10%(수출입물량 평균 기준)를 넘는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었던 세계교역 규모는 금년에는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로 증가율이 낮게는 7%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 경제성장률 및 교역량 전망

(단위: %)

	1999	2000			2001		
		IMF	OECD	WEFA	IMF	OECD	WEFA
전세계	3.4	4.7	4.7	4.4	4.2	4.1	3.8
선진국	3.2	4.2	4.3	-	3.2	3.3	-
(미국)	4.2	5.2	5.2	5.3	3.2	3.5	3.6
(일본)	0.2	1.4	1.9	2.1	1.8	2.3	3.1
(EU)	2.4	3.4	3.4	-	3.3	3.0	-
세계 교역량 ¹⁾	5.1	10.0	13.3	11.4	7.8	9.7	8.2
선진국 수입 ²⁾	7.6	10.3	12.7	-	7.9	9.2	-
개도국 수출 ²⁾	5.3	8.8	15.0	-	7.1	10.2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0, 9.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00, 11.

WEFA, World Economic Outlook, 2000, fourth quarter.

주: 1) '수출입물량 평균' 기준, WEFA의 경우 '수출물량' 기준.

2) IMF와 OECD는 '물량' 기준, WEFA의 경우는 '금액' 기준.

환율측면에서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단기적으로 작년에 이은 달러화의 전반적 강세기조가 예상된다. 이는 전반적인 미국경기의 둔화와 더불어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경우 외국인투자자금의 유출로 자국 주식시장의 약세 전환과 이에 따른 경제에의 부정적 효과를 미국이 우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반기 미국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하여 경제여건이 호전된다면 막대한 재정적자로 인한 경제에의 심각한 영향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한 달러정책을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리면을 살펴볼 때, 금년 중 세계적인 저금리화가 진행될 것인지가 변수이다. 미국의 연준은 경기가 작년 말 이후 크게 악화됨에 따라 1월 3일 전격적으로 연방기금(Federal funds) 금리를 6.0%로 0.5%포인트 인하한데 이어 31일에도 0.5%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하여 금리인하의 선봉에 섰다. 이에 따라 금융정책 부담을 훨씬 덜게 된 일본과 유로권이 시차를 두고 동조 인하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될 경우 세계 경기부양과 채무국의 이자부담 경감 등 세계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으로 금년 세계경제의 성장에 대한 견해는 낙관적 전망과 비관적 전망이 혼재하며 그 어느해보다 높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는 고유가 기조의 지속 우려, 미국의 주식시장 붕괴 및 무역불균형 확대에 따른 경기 침체, 일본의 재정적자, 신흥개도국의 금융불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하고 일본의 경기회복이 가시화된다는 전제 하에, 세계경제는 국제금리와 유가의 하향 안정 속 에 여전히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보 다 강한 편이다.

경쟁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

국내의 경제에서 이처럼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됨과 더불어 WTO(세계무역기구)로 상징되는 세계무역 질서의 개편은 그동안 정부의 규제와 보호, 불투명한 금융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 개별 산업들에게 새로운 위기가자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새로운 무역질서는 각 경제주체의 개방화·투명화·자율화·무한경쟁을 가속

화시키고 있으며 패러다임의 전환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이에 직면한 산업들 중에서도 기간산업이란 특성상 국내활동에만 주로 치중해온 정유산업은 그만큼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무한경쟁시대를 헤쳐 나가고 있는 세계 업체와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배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국내 정유업계는 태동때부터 국내자본과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주로 해외 메이저사들과의 합작기업으로 출발하였다. 따라서 국내 정유사들은 처음부터 외국의 선진경영기법을 도입할 수 있었고 또 국내산업 중 상대적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며 향후 국내 정유업계가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충분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대규모 석유수입국이자 소비국으로서 원유수입량으로 세계 3위('98년 기준), 소비량으로 세계 6위(2.9%, '99년 기준)를 점하고 있다. 이렇듯 소비 및 수입 면에서는 세계 석유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원유생산량은 실질적으로 전무한 상태이므로 그간 석유정책의 기조는 소비지 통제방식에 의해 석유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 정유업체들은 주로 석유정제를 기반으로 한 국내활동에만 치중해 온 결과 국내 정유사들의 자생력은 점점 악화될 수 밖에 없었다.

석유관련 지표

(단위: 천 b/d)

	원유수입	제품수입	석유소비	정제능력
한국	2,254(3위)	390(11위)	2,165(6위)	2,540(5위)
미국	8,925(1위)	2,078(1위)	18,490(1위)	16,541(1위)
일본	4,366(2위)	868(3위)	5,650(2위)	4,998(3위)

자료: World Oil Trade 1999, BP Amoco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00, Oil & Gas Journal.

이러한 대내적 여건 외에 WTO체제로 대표되는 자율화·개방화의 세계적 조류를 거스를 수 없게 되면서 정부는 정유산업의 단계적인 자유화라는 정책기조의 전환

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유가 자유화의 일환으로 '95년 11월 주유소의 거리제한이 철폐되었고 '97년 1월부터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과 수출입, 석유판매가 자유화되었으며 외환위기를 계기로 정제시설의 신증설이 자유화되고 정제업의 신규진입과 대외개방이 이루어졌다. 바야흐로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무한경쟁시대에 처해진 지금, 국내 정유업체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고 나아가 세계적인 선두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들은 무엇인가?

가격자유화 및 시장개방은 한국 정유업계에게는 전혀 새로운 도전이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중기적으로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성장하는 중국 및 동남아시아 시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자본 및 기술력에서도 동아시아지역의 정제center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정유산업이 전통적인 내수중심 산업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싱가포르의 경우는 내수규모의 두배에 달하는 정제시설을 보유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석유제품 수급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싱가포르가 담당하고 있는 이 역할을 우리가 인수할 수 있느냐가 21세기 한국 정유산업의 위상을 결정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석유와 석유화학 뿐만 아니라 전력, 도시가스, 대체에너지, e-business 등의 사업분야에 투자를 강화하고 수익기반을 구축하여 21세기 종합에너지 산업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미 메이저사들의 경우 BP와 Amoco(BP-Amoco : 3위)가 Exxon과 Mobil(Exxon Mobil : 1위)이 각각 합병을 발표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종합에너지 산업으로 발전할 때 비로소 상류부문인 석유탐사 및 개발분야로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

이는 높은 투자위험성과 첨단기술 및 풍부한 자금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국내 정유산업이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도전의 장이 될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들은 다

음과 같다.

먼저 내부적으로 경영활동의 다양한 측면에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재무구조 혁신, 환리스크와 가격변동리스크에의 효과적 대응,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투자활동, 고객만족·지식경영 등이 포함된다.

둘째, 시장에서는 공정경쟁질서가 정착되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라는 강력한 조정자가 존재하는 시장에 익숙해져 있는 정유산업 및 시장경쟁의 행태가 이러한 조정자의 개입이 없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시장균형을 찾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정부, 정유사, 유통업체 그리고 새로이 동 시장에 참여할 잠재적 시장참여자 모두가 존중할 수 있는 게임의 룰이 확립되어지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자유화 시대에 있어서 이러한 임무의 핵은 기존 정유업체가 쥐고 있으며 이의 수립과정에는 상당한 정도의 학습기간과 비용지불을 감수할 수도 있어야 한다.

셋째, 국제화의 추진이다. 여기에는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의 능동적 참여를 통해 국제거래간에 빈번한 무역마찰의 소지를 줄이려는 노력, 산유국 메이저들과의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 모색, 전세계적인 환경보호 움직임에의 대응한 정제·유통·소비 각 단계에서의 능동적 환경개선 노력, 설비가동률의 신축적 운영을 통한 대내·외 수익성 제고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기 대응능력의 강화이다. 이는 그 동안 석유위기 발생시마다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온 문제이다. 이러한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석유의존도 감축, 자주원유개발비중의 제고, 비축일수의 증강 등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비상시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석유수급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이 병행되어 수행되고 합리적으로 feed-back될 때, 21세기를 맞은 한국의 정유산업은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국가경제 대동맥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